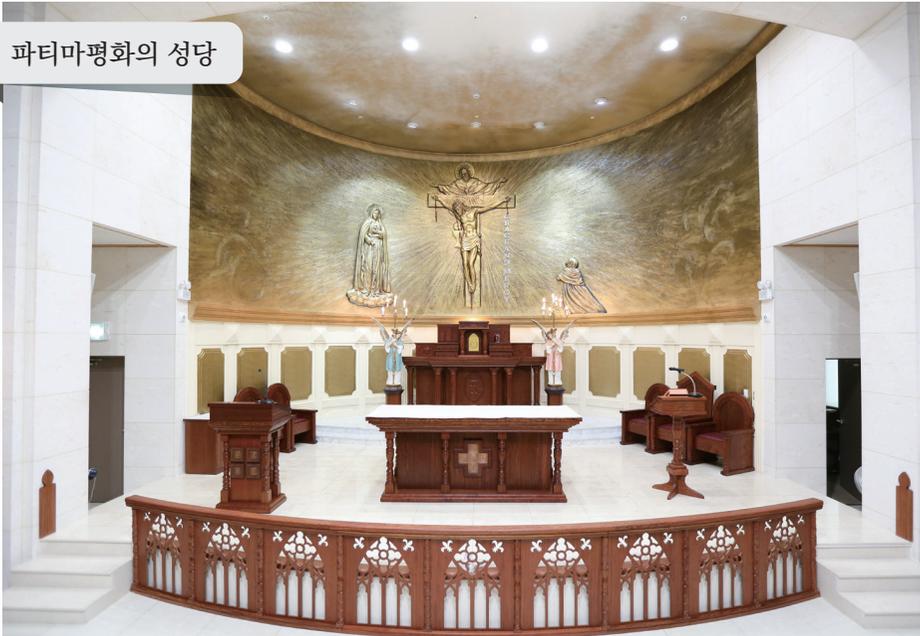




- 대림 제2주일 (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 2019년 12월 8일 · 가예

천주교 의정부교구(<http://ucatholic.or.kr>)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제829호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850-1433-5(홍보국) · 팩스 850-1575 · 이메일 jubo@uca.or.kr

파티마평화의 성당



설립 2015년 전화 사무실 031-952-6324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로 100

제1독서 이사 11,1-10

화답송 시편 72(71),1-2,7-8,12-13,17(◎7ㄴㄷ 참조)

◎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 그의 이름 영원히 이어지며 그의 이름 해처럼 솟아오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그를 칭송하게 하소서. ◎

제2독서 로마 15,4-9

복음 환호송 루카 3,4,6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음 마태 3,1-12

영성체송 바룩 5,5; 4,36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그리스도의 증인



정중희 필립보 신부
야당 맑은연못 부주임

찬미예수님! 대림 제2주일은 메시아가 온다고 알리는 세례자 요한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마태오, 마르코, 루카 복음서에서 세례자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마태 3,3)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러한 회개는 내 정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메타노이아, 즉 회개라는 말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느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느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볼 때, 달리 행동하고 길을 역행하지 않으며 생명으로 이끄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처럼 대림 시기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걸은 길을 돌이켜 보고, 길을 잘못 들었다면 다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루카 복음 3장 6절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에서 회개뿐 아니라 구원의 도래까지도 선포하며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가리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마태 3,11)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아닌 메시아를 선포하며, 자신이 메시아에 앞서 길을 걷는 선구자임을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선구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앞서 길을 내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자 하는’ 갈망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 누군가는 사람들의 가장 깊은 갈망을 충족시켜 주실 분이십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전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와 우리 행동이 어떤 모습이어야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내 존재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내 갈망을 오롯이 채워줄, 나를 대신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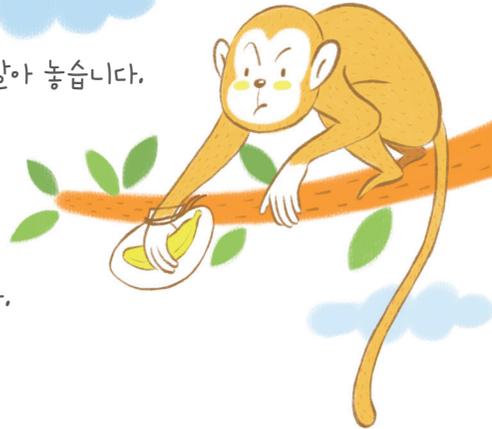
세례자 요한은 우리가 전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우리의 일과 우리의 메시지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면에서 나서는 않고 그리스도를 빛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원숭이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원숭이를 잡는 방법입니다.
 먼저 가죽으로 자루를 만들되 입을 좁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숭이의 손이 겨우 들어가고 나올 정도입니다.
 다음에는 그 자루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실을 넣어서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습니다.

원숭이가 나타납니다.
 녀석은 자루 속을 들여다보곤 '웬 떡이냐'며 희희낙락합니다.
 그러고는 '얼씨구나'하고 자루 속에 손을 집어넣어 과실을 꺼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숭이의 손은 자루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과실을 쥐고 있으니깐요.



나뭇가지에 매여 있는 가죽 자루, 그 가죽 자루 속에 붙들려 있는 원숭이의 손.
 가장 간단한 이치를 가련한 원숭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손안에 쥐 먹이를 놓아 버리면 될 것을.
 그러면 저 자유의 숲을 다시 누빌 수 있으련만.

원숭이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은 다름 아닌 원숭이의 욕심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손에 쥐고서 놓지를 못합니까?
 그 욕심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끝장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



그림 _ 구민정 엘리사벳

‘겨우 이 정도의 고통’도 고통이 맞아요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의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은 매주 한 명씩, 어려운 이웃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모금해서 후원금 전액을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얼마 전 이 프로그램의 구성을 맡은 이후로 나는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스스로 고통을 검열하는 습관이 생겼다. 내가 접한 사연 중에는 아내가 암으로 사망한 뒤 남편 혼자 아들 셋을 키우며 밤낮으로 일하다 큰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고, 수년간 한국인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다 가까스로 이혼했지만 건강이 악화되어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외로이 투병하는 베트남 여성도 있다. 그들에 비하면 내 괴로움은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다. 그래서 육아와 일에 짓눌려 숨이 턱턱 막힐 때면 나는 왜 별 것도 아닌 일로 힘들어 하는가 자책하곤 한다.

내가 주로 힘들어 하는 부분을 요약하면 이거다. ‘빨리 애들을 재우고 일해야 하는데 애들이 잠은 안 자고 말썽을 피움.’ 이렇게 글로 적어보니까 하찮기 짝이 없는데 어느 날엔 이게 너무 속상하고 힘에 부친 나머지 눈물이 날 지경이다. 물론 섬세하게 들여다보자면 나에게도 자잘한 고충이 수십 개쯤 있지만 그야말로 자잘한 것들이라 남에게 말하기도 치사스럽다. 친구들에게 하소연 하려고 단톡방에 주절주절 적다가 민망한 마음에 전송버튼을 누르지 않고 지운 적도 여러 번이다. 아무도 나에게 ‘고작 그 정도 갖고 뭘 힘들다 그러냐’ 다그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스스로의 괴로움을 깎아내리는 걸까.

그러던 차에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보고, 비슷한 처지로서 마음이 먹먹한 것과는 별개로, 안도감이 드는 부분이 있었다. ‘겨우 이 정도의 고통’도 고통이 분명하다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하고 정규직 취업도 했고 다정한 남편을 만나 좋은 아파트에 사는, 여러모로 팔자가 좋은 편에 속하는 김지영조차도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것. 물론 그런 이유로 더 절망스럽기도 하지만(이게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나의 이 ‘순한 맛 고통’도 서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출산과 육아, 그리고 애 엄마라는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건 누구에게나 힘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내가 나약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마음이 놓였다.

가뜩이나 힘든 와중에 스스로에게 ‘힘들어 하면 안 돼! 이 나약한 인간!’하고 다그치면서 자신을 더 큰 괴로움으로 몰아넣는 사람이 있다면 이젠 그러지 말자고 말하고 싶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고통 바구니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 것이 더 크고 작은지 겨룰 필요가 전혀 없다.

나라는 인간으로 삼십 년 넘게 살아왔어도 나에게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내가 느끼는 고통의 크기와 깊이를 포함해, 나를 시시콜콜 정확히 아시는 분은 주님 한 분 뿐이다. 나를 잘 알고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내가 느끼는 고통을 나눠 갖고 계시다는 게 적잖이 위로가 된다. 🍀

정신후 블라시아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작가, 정발산 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본당 청년과 결혼하여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신앙의 고백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칭하는 이들은 이전부터 많이 있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유럽처럼 복음을 일찍 받아들인 나라들에서부터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아시아의 여러 곳에서 스스로 시대의 구원자라는 이들이 나타나 그리스도인들을 홀리고, 복음과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해왔다. 이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이다.

*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 ...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 또는 ‘아니, 여기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이들까지 속이려고 큰 표징과 이적들을 일으킬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둔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광야에 계시다.’ 하더라도 나가지 마라. ‘보라, 골방에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마태 24,4-5.23-26)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혹(‘떼어놓다’에서 온 말)이다. 성경을 들고 찾아오든,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든, 훌륭한 언변과 놀라운 능력을 보이더라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이며 유혹자이다. 이러한 유혹자를 알아보고 그들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굳센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신앙-믿음에 따른 삶에 대한 것이다.

신앙은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가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 곧, 주님과 의 관계에 그 기초가 놓여 있다. 신앙은 지식도 아니며, 실천도 아니다. 신앙은 우리보다 먼저 당신을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 그분을 알아 뵈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며, 그분의 이 놀라우신 ‘우선적 사랑’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다. 그 속에서 그분에 대해 배우고, 그분의 뜻에 따른 삶의 길을 걷는 것이다. 곧 신앙한다-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우선적 사랑 앞에 사랑으로 응답함으로써 주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마주치는, 그리스도를 사칭하며 세상의 구원자인 양 하는 이들의 유혹에 흔들리는 이들은, 신앙을 ‘주님과 의 관계 맺음’이라는 것을 놓치고, 자꾸 앎과 행함(지식과 실천)에만 매달리다 그렇게 된 것이다. 사랑의 주님을 찾지 않고 지식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데에 집중해서 그런 것이다.

지식과 실천은 분명 신앙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길이고 세상 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이며 신앙을 튼튼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시 해야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신 하느님의 아드님,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께 대한 믿음이며,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

"너의 목소리가 들려~~♪"

12월의 목소리는 대림 제2주일과 인권 주일을 맞아 친구들이 보내온 기도예요.
올 한 해 각 지구에서 활동한 밀알 대표 친구들과 함께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 볼까요?



양 떼들을 돌보시는 주님, 저희 모두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좋지 않았던 기억들은 추억으로 남기고 좋은 기억들만 안고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설레고 벅찬 마음 안에서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지구 홍여경 가브리엘라(진건)



아기 예수님! 우리 모두 하나되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서로에 대해 소중함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2지구 이효임 아녜스(구리)



아기 예수님, 밀알 축제를 함께 준비했던 3지구 밀알 친구들에게 지난 1년의 시간이 즐겁고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어 그것을 발판삼아 본당에 돌아가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지구 신서영 세실리아(용현동)



드디어 찾아온 대림 시기, 그토록 기다리던 새해가 시작돼요! 우리 모두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려봐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대림 시기에는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기보다는 경건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지구 이건형 바오로(덕정)



사랑이 가득하신 주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 한 해 동안 화정동 성당 회장을 맡았습니다.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부 친구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통하여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5지구 김서진 카타리나(화정동)



모두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2019년을 되돌아보고, 주변 이웃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는지 헤아려보며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주는 한 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6지구 김수아 빨리나(풍동)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저희가 있지만 기쁨을 못 누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기쁜 성탄인 만큼 모든 사람이 기쁘게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5지구 정예빈 아가다(신원동)



벌써 성탄 준비 시즌이네요! 첫 모임의 어색함이 기억나는 8지구 밀알 모임도 끝이 났어요! 2학기 공동체 미사를 제일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상치 못했던 도래지 열병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아쉬웠지만 만나는 시간이 정말 의미 있었어요. 너무도 고마웠던 밀알이었고 2020년도 모두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길 예수님께 기도드려요~:) 8지구 조아현 소화데레사(금촌2동)



주님, 이번 한 해를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내년에도 더 행복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올해 행복했던 일들을 평생토록 좋은 기억으로 간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 7지구 박정수 아녜스(일산)



더블 엔더의 오토 건축을 말하다

힐데스하임의 성 미카엘 성당

강한수 가롤로 신부 | 민락동 성당 주임, 건축신학연구소

신성로마제국의 성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 건축'은 오토 왕조(936~1024년)의 건축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이후의 잘리어 왕조 시기까지 독일 초기 로마네스크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토 건축이 시작된 곳은 작센 지역이고 그중에서도 게른로데와 힐데스하임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성당은 게른로데의 성 치리아코 성당(961년)으로 목조 평천장으로 건축되었습니다. 네이브월이 아케이드층과 갤러리층, 그리고 클리어스토리의 3단 구성으로 발전되었고, 기둥 역시 사각형의 주기둥과 원형의 부기둥이 교차 리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성 미카엘 성당 외관

이러한 구조가 힐데스하임의 성 미카엘 성당(1033년)으로 이어지면서 독일 초기 로마네스크를 완성시킵니다. 성 미카

엘 성당은 우선 성 치리아코 성당의 목조 평천장과 장식 없는 네이브월을 계승합니다. 석조 볼트천장이 아닌 목조 평천장은 가벼워서 네이브월에 부담을 덜 주게 되고, 따라서 갤러리층이 없어도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3단 구성이 2단 구성으로 오히려 단순화되고, 그것은 장식 없는 네이브월의 면적을 더 넓게 해주었습니다. 독일 성당의 벽면이 추상적으로 처리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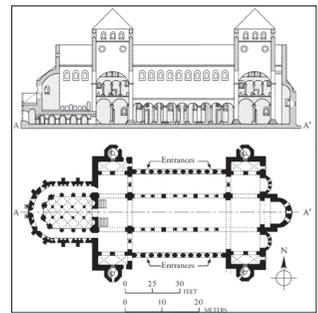
반면에 기둥은 확실히 발전된 면을 보여줍니다. 사각형의 주기둥을 중심으로 주기둥 사이에 두 개의 원형 부기둥이 들어가면서 작센 지역 고유의 리듬감을 형

성합니다. 반원 아치의 연속인 아케이드는 이러한 리듬감을 더해주고, 고전 양식이 아닌 작센 고유 의 문양을 하고 있는 주두 역시 오토 건축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성 미카엘 성당 내부

평면은 로마네스크의 전형적인 바실리카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이브는 크로싱을 모듈로 세 개의 정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아직 아일은 모듈 개념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트엔드와 웨스트워크는 그 양끝에 모두 트란sept와 앵스를 갖는 더블 엔더 형식입니다. 더블 엔더란 웨스트워크 자리에 이스트엔드의 구성이 한 번 더 들어간 형식을 말합니다. 곧 앵스와 성가대석이 동쪽에만 있는 것이 표준형이라면 더블 엔더는 서쪽에도 앵스와 성가대석이 놓이는 평면입니다. 따라서 더블 엔더의 평면은 서쪽에 출입구를 내지 못하고 남쪽이나 북쪽에 만들기 때문에 프랑스 초기 로마네스크에서 볼 수 있었던 웨스트워크의 웅장한 출입구 형태(파사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블 엔더는 오토 건축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더블 엔더 각각의 크로싱 위에 탑이 세워짐



성 미카엘 성당의 단면과 평면

으로써 성 미카엘 성당은 건물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란sept 양 끝의 계단실 역시 성당의 네 모퉁이에 균등하게 탑 형식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균형감은 배가됩니다. 다음 회에는 독일에서 작센과 반대쪽이면서 프랑스에 가까운 라인란트의 초기 로마네스크 성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미사 · 피정 ▶▶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위탁피정 모집

대상: 성인단체, 첫영성체, 노인대학
일정: 1일, 1박2일 /문의: 031-840-0018

교구 성령쇄신 봉사회 철야기도회(미사와 함께)

일시: 매주(금) 21:10~01:20 마두동 성당(12/13)
주제: 찬양과 치유 기도회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 010-8729-0025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12/14(토) 10시 후곡 성당
12/21(토) 9:50 주교좌 의정부 성당
문의: 02-3673-2525

성가정을 위한 주말 영성 피정

일시: 12/14(토) 10시~12/15(일) 17시(1박 2일)
장소: 예수마음 배움터(파주시야당동 1011-3)
대상: 모든 형제와 가족 및 자매들(선착순100명)
회비: 6만 원 (신한은행 110-425-066040)
주최: 교구 형제기도회
문의: 010-8932-9067, 010-9008-1796

파티마성모님 발원 피정

일시: 12/13(금)
장소: 파티마 평화의 성당 031-952-6324
일정: 10시 기도, 11시 강의, 고해성사
14시 미사, 성체거동행렬, 강복 (점심 제공)

매듭을 푸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와 묵상 피정

일시: 매주 화요일
장소: 파티마평화의 성당 /일정: 10시 기도와 묵상, 11시 강의, 14시 미사, 점심제공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송년피정: 12/27(금)~29(일)
성경완독피정: 1/10(금)~18(일), 2/14(금)~22(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제4차 성령 안에 말씀과 함께 하는 영성피정

일시,장소: 20. 3/14(토)~15(일), 의왕시 아론의집
주제: 돌을 치우라(요한 11,39)
지도: 정건석 신부, 유용덕 신부
주최: 미국 중남부 봉사자 협의회
하찬사(하느님을 찬양하는사람들)
문의: 010-2855-9082, 010-3319-9082

성탄맞이 Monstay - Boun Natale!!

일시: 12/23~25(저녁기도로 시작)
장소: 연천 착한외건의 성모수도원
선착순 30명(2인1실) /참가비: 15만 원
문의: 031-834-1262, 1263

최봉도 신부 희망기도(내적치유) 피정 2박3일

일시: 12/13~15, 1/3~5(금~일)
마음이 가벼워지는 방법
장소: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관(지하철 2,6호선7번출구) 선착순 70명
문의: 010-6254-0057 전 크리스티나

예수회 후원회 월례특강

주제/강사: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해설 / 심중혁 신부
일시: 12/16(월) 13:30~16:30
장소: 마두동 성당 4층 소성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54)
문의: 010-5054-4470/ 무료, 미사봉헌

예수회 후원회 월례특강

주제/강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구동욱 신부 /장소: 예수회센터
일시: 12/18(수) 13:30~16:30
문의: 02-3276-7777 무료, 미사봉헌

예수회 후원회 금요일침묵 피정

주제/강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 구동욱 신부
일시: 12/13(금) 10시~13시/ 장소: 예수회 센터(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19)
문의: 02-3276-7777 /무료, 미사봉헌

제주면회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 역사, 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 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접수 가능)
기간: 12/14~17(추차도), 1/13~15
한라산눈꽃산행: 1/4~6, 1/17~19, 2/1~3
연말연시: 12/29~1/1(일몰, 일출, 한라산눈꽃산행)
접수: 02-773-1463, 064-756-6009

한Ti아고 가는 길(성지순례길)

일시: 12/20-21, 1/10-11, 1/30-2/1(2박3일)완주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피정의집
참가비: 1박2일(6만5천 원), 2박3일(13만 원)
문의처: 054-971-0722, 010-6791-0071

씨튼 젊은이 송년 피정

일시: 12/31(화) 18:30~1/1(수) 13시
대상: 미혼 남녀 /비용: 2만 원
문의: 씨튼영성센터 02-744-9825

서울 삼성산 2박3일 무료 치유대피정

일시: 12/13(금)15시~12/15(주일)15시
장소: 삼성산피정의 집
강사: 손광배 신부, 김종일 신부 등
내용: 성시간, 매일미사, 찬양 및 강의
문의: 010-8362-9857



교육 · 모집 ▶▶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보육사)모집

근무지: 고양시
신청기간: 12/8(주일)까지
근무시작일: 12/16(예정)
자세한 내용은 대건카리타스 홈페이지 참조

직장경찰사목위원회 신앙학교4

일시: 12/14(토) 15시~16:30
장소: 의정부교구청 3층(중회의실)
강사: 성기현 바오로 신부(가톨릭 의대교수)
강의내용: 현대 미디어와 신앙생활
강의비: 5천 원 /접수: 031-850-1477
주관: 직장경찰사목위원회

도시락 배달/포장 및 밀반찬 배달 봉사자 모집

기관: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시기: 도시락 배달/포장, 밀반찬 배달(주 1회)
장소: 복지관 및 각 대상자 가정(고양시 일대)
내용: 배달 봉사자의 경우 자차 이용 가능한 분
문의: 최희철 사회복지사 031-975-3322

2020학년도 인천가톨릭대학교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 12/26(목)~12/31(화)
모집학과: 조형예술학과, 융합디자인학과, 간호학과 /전형방법: 수능위주, 실기위주
문의: 032-830-7012(송도국제캠퍼스입학홍보과)

양업고와 함께 하는 행복한 겨울캠프

일시: 20.1/3(금)~5(일) 2박 3일
대상: 중학교 1~2학년
비용: 15만 원
장소: 양업고등학교 043-260-5078
접수: 양업고 홈페이지(12/17부터 선착순)

예수고난회 재속3회원(동반자) 모집

대상: 55세 이하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교우
문의: 010-5744-9333

커피바리스타교육 (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주 1회 12주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
문의: 010-9040-8306, 010-2511-6845
<http://club.catholic.or.kr/barista>

예수회 특별강좌 (가톨릭 신앙과 영성) 2020 '봄'

일시: 매월 둘째,넷째(화) 10시~11:55, 총 7회
장소: 예수회센터 3층 성당, 3/10(화) 개강
강사: 예수회 사제(송봉모, 김정택, 이규성, 전찬용, 권오면) 및 임숙희 박사, 홍기령 교수
※이 밖의 다양한 강좌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수사신부님들과 함께하는 노인요양원 입소자 모집

대상: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을 받으신 분
운영: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문의: 033-458-9422(문피노인요양원)

2020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시모집

전국 최대 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 대학
입학정원: 2,912명
원서접수: 12/26(목)~31(화)
입학상담: 053-850-2580

안내 · 기타 ▶▶

제8회 이슬리스피 정기연주회

일시: 12/13(금) 방화3동 성당 19:30 (지휘 이호중)
문의: 010-8998-5913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02-2281-9070

1/16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 원
1/27 발칸반도 12일 355만 원
1/28 유럽 성모발현지 13일 375만 원
2/15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68만 원
2/15 이탈리아 프랑스 11일 420만 원

가톨릭여행사 010-5235-3533

1/06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 원
1/20 이스라엘 일주 9일 365만 원
1/28 이탈리아 일주 13일 430만 원
3/10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415만 원

제19회 가톨릭평화방송 영어캠프

미국: 샌프란시스코부터 실리콘밸리와 LA까지
국내 유일의 샌프란시스코 미국 영어캠프!
사이판: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과 현지 투어
필리핀: 안전한 리조트에서 진행되는 1대1 수업
문의: 02-734-0999, www.pbccamp.com

라파엘여행사02-778-8565

이스라엘,요르단10일 3/29 4/20 289만원
이스라엘9일 1/30 369만원 3/30 299만원
이태리일주9일 2/25, 3/12 279만원
스페인 포르투갈10일 3/4 299만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입양상담 및 입양 전까지 사랑으로 돌볼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문의: 02-764-4741~3 www.holyfcac.or.kr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루르드/ 파티마 성지 순례 일정
일시: 20.4/2 439만 원/ 가톨릭 트래블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아름 전국 성지순례 02-755-3009

원주출천: 12/19~12/20. 부산교구: 2/13~2/15
제5차 수도원순례: 3월 4일~3월 7일
순례: 도미니코, 가르멜, 베네딕도, 트라피스트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골프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제주도 성지 순례 3일

일시: 12/17~19, 1/3~5, 2/26~28, 3/20~22
장소: 제주성지 7곳 (성지해설)
문의: 064-805-9689
해외순례: 20.3/2 그리스 터키 12일
순례자를 위한 제주 렌터카&숙박 예약가능

한국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9 이스라엘, 요르단 13일 380만 원
2/13 베트남 성모성지(다낭) 5일 160만 원
3/23 터키, 그리스 12일 370만 원
3/27 이스라엘, 요르단 13일 370만 원
문의: 02-722-8366(크로바여행사)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 시	장 소	문 의
	스승예의수제자수녀회	12/15 13:30	미아리본원	010-9816-0072
	성체선교콜라라수녀회	12/22 11시~16시	성체선교콜라라 수녀회 본원	042-527-5514, 010-8683-6848



의정부주보 게재 신청 안내

신청 의정부주보 게재 신청은 <http://jubo.ucatholic.or.kr> 에서만 받습니다.

대상 교회에서 인가받은 단체만 게재 가능합니다.

내용 개인이 의뢰하는 광고나 상업적인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 내용 수정 및 취소는 주보 게재일로부터 2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02 영성의 향기

가짜뉴스와 기쁜 소식

김동규 바오로 신부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교수

요즘 모임에서 어떤 정보를 말하면, 다른 누군가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 정보가 사실인지 즉각 검증하는 풍경이 낯설지 않습니다. 어설피게 알고 입을 열었다가는 즉각적인 현장검증에 무안해지거나 망신을 당하는 일도 흔치 않습니다.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그의 저서 『호모 데우스(Homo Deus)』에서 “데이터이즘”(Deiticism)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데이터이즘이란 축적된 무한정의 데이터(정보)에 따른 알고리즘(algorithm)과 빅데이터(big data)가 인간의 판단의 주요원천이 되어, 데이터를 인간의 지식과 지혜보다 더 신뢰하고 숭배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앞으로의 인류는 정보 과잉의 홍수를 감당하지 못해, 시시각각 쏟아지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 안에서 지식과 지혜를 발췌해 내는 것은 고사하고 진실된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조차 힘들 것이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의 지식과, 지혜, 판단과 맞바꾼 데이터가 가짜라면 무엇을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가짜뉴스’, ‘팩트 체크’(fact check)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빨간색이 칠해진 벽을 보는 사람은 빨간색 담을 진짜라 믿을 것이고, 파란색이 칠해진 벽을 보는 사람은 파란색 담을 진짜라 믿을 것입니다. 양쪽에 주어진 빨간색과 파란색의 데이터는 각자가 믿는 진짜 정보가 되기에, 빨간색이 진짜인지

파란색이 진짜인지에 대한 싸움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즉 진짜뉴스는 누구에게는 진짜가 되고 누구에게는 가짜가 되며, 반대로 가짜뉴스는 누구에게는 가짜가, 누구에게는 또 진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철학에서 말하는 ‘실체’는 늘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짜 근원이 됩니다. 실체적 진실은 가짜이면서 동시에 진짜일 수는 없습니다. 진짜는 오직 진짜고 가짜는 오직 가짜입니다. 둘 중 한 쪽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거짓된 정보를 진짜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생활 안에서 오직 하나의 실체적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기쁜 소식) 뿐입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짜 신앙, 거짓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진짜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왜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고, 내 삶은 믿음과 분리되어 있는가?”, “나는 구원을 진정 믿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리스도라는 변하지 않는 진리에 기초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방어기제’와 ‘자기-합리화’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진짜라고 믿는 나의 원의, 신념, 가치관에 기초한 믿음을 가져왔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